

올해 초, 서른이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던 딸이 조심스럽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만난 지 2년이 되었고, 부모가 허락하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반가움과 함께 묘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어느새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예비 사위는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사진 속 두 사람을 보며 미래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신청했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에 당첨된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회였지만 입주하려면 결혼식보다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결혼은 예식을 올리고 친지들의 축복을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두 아이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회의를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형식을 먼저 생각했고, 아이들은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가 바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서로의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에서 지내는 두 사람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위는 퇴근하면 먼저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켜졌습니다. 집안일을 특별히 아내를 위해 '도와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당연히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생활비도 각자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함께 모아 생활비와 미래를 준비했고, 자연스럽게 '내 돈, 네 돈'이라는 경계도 사라졌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 퇴근하면 쉬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부지런히 움직이니 괜히 미안했는지 슬그머니 일어나 함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도 배우겠다며 이것저것 만들어 보겠다고 하기에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보내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제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삼형제의 맏며느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금융기관에 취직해 맞벌이를 했지만, 주말이면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희생과 인내는 너무도 당연한 몫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도와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딸 부부를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안일도, 경제도, 미래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퇴근한 사람이 먼저 청소기를 드는 일, 상대가 피곤하면 기꺼이 밥을 하는 일, 월급을 함께 모아 같은 꿈을 꾸는 일, 내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작은 수고를 감당하는 일.

그 평범한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양성평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단했던 제 젊은 날을 지나 이제는 딸 부부를 응원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희생으로 유지되는 가정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책임지는 가정이 더 오래 행복하다는 사실을 두 아이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부부란 누군가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에 맞춰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두 아이가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힘든 날에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딸의 결혼을 통해 새롭게 배운, 가장 따뜻한 양성평등의 모습입니다.